

사서(司書) 백린(白麟)의 삶과 연구 지평

A Study on the Life and Research Horizons of a Librarian Baek Rin (白麟)

이 민 희 (Min-Heui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연구 사서로서의 학문적 성과 |
| II. 백린의 삶과 주요 행적 | IV. 결론 |

요약: 본 연구는 43년간 대학도서관 사서로 헌신한 백린(白麟, 1923-2015)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재구하고, 그가 도서관학 발전에 미친 영향과 학문적 성과를 개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48년 서울대 도서관 사서 채용 시험 합격 후 한·중·일 문헌자료와 서양서를 두루 다루는 사서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전쟁 당시 규장각 소장 국보급 고서의 부산 소개(疏開) 및 보관의 실무 책임을 맡았고, 전후에 서울대 규장각 도서 정리 및 목록 작성, 분류를 책임졌다. 도서 분류, 도서기호 초안을 마련했고, 한국도서관협회 등 여러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연세대 도서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도서관학 관련 50여 편의 소논문(학술기사)과 7편의 편·저서를 출간했다. 1960년대에 규장각 장서의 역사뿐 아니라 국내 도서관의 역사를 학계 최초로 통시적으로 집필한 성과는 높게 평가되어 마땅하다. 1973년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한국학 목록 사서로 이직 후, 1991년 퇴임 때까지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내 한국관 소장 동아시아 한적과 한국 서적을 목록화하고 그곳 교수들의 연구에 조력했다. 백린은 불모지 같던 한국 도서관학계에 초석을 마련한 1세대 연구 사서이자 스승이다.

주제어: 백린(白麟), 서울대 도서관 사서,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사서, 최초의 한국 도서관사 저술, 연구사서, 규장각 장서 연구

ABSTRACT: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constructs the life of Baek Rin (1923 - 2015), who dedicated 43 years of his life as a university librarian, and provides an overview of hi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science and his academic achievements. After passing the librarian recruitment ex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48, he excelled as a librarian, handling various Korean, Chinese, Japanese, and Western literary materials. During the Korean War, he was in charge of the practical tasks of transporting and storing the National Treasures from Gyujaenggak to Busan. After the war, he was responsible for organizing, cataloging, and classifying the books of Gyujaenggak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prepared the initial drafts of book classification and served as an executive in sever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While teaching at universities after obtaining a master's degree in library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he published 49 academic articles and 7 edited and authored books. It is highly regarded that he was the first scholar to chronologically write the history of libraries in Korea. In 1973, he transferred to Harvard University's Yenching Library as a Korean studies cataloging librarian, and until his retirement in 1991, he cataloged East Asian classical texts and Korean books at Harvard's Yenching Library and supported the research of professors there. Baek Rin is a first-generation research librarian and teacher who laid the foundation for the barren Korean library science world.

KEYWORDS: Baek Rin(白麟),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an, Harvard Yenching Library Librarian, the First Author of History of Korean Libraries, Research Librarian, Scholar of Gyujaenggak Collection Studies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wallenrod@kangwon.ac.kr / ISNI 0000 0004 6333 6572)

- 논문접수: 2024년 8월 22일 • 최초심사: 202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24년 9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213-239,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213>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일제강점기에 국내 최초의 근대식 대학도서관인 경성제대 부속도서관(현 서울대 도서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사서는 극소수였다. 한국어 서적 취급을 금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은 서울대 도서관으로 바뀌었으나, 도서관에서 근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1948년 도서관장이 된 이병도 교수는 사서 채용 공고를 내 시험을 통해 사서를 새로 뽑았는데, 이때 선발된 사서 중 한 명이 백린(白麟, 1923~2015)이다.

백린은 사서로서 서울대 도서관 초창기 역사와 함께 한 증인이자 대선배이다. 더욱이 25년간 서울대 도서관에서 근무한 후 50세의 나이에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사서로 스카우트되어 미국에 가서 19년간 근무하고 퇴임한 후 보스턴에서 여생을 보낸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와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평생 사서의 길을 걸었다는 이력도 놀랍거니와 사서이기 이전에 평생 도서관학과 서지학 연구에 골몰했던 연구 사서였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외에 더 놀라운 것은 도서관학계에서 지금까지 백린에 관한 연구나 논의가 별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백린을 아는 서울대 도서관 후배 사서나 지인 중에 그의 삶과 사서로서의 행적에 관해 수필 식으로 소개한 글(마미경, 2017; 박종근, 2000; 2016; 2019)과, 백린이 쓴 국내 최초의 도서관 통사인 『한국 도서관사 연구』(1969)에 대한 비평 논문과 새로 쓴 한국 도서관사에서 백린을 언급한 것(송승섭, 2019a; 2019b; 2023) 정도가 전부라 할 것이다. 후자는 백린이 도서관사를 세상에 내놓은 지 50년이 지나 선보인 보론적 성격의 도서관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일찍이 백린이 내놓은 성과를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린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도서관계의 1세대 사서인 백린 관련 연구 부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백린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적었던 것은 서울대와 하버드대 도서관 관계자, 그리고 백린을 아는 지인 그 누구도 선불리 나서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백린의 삶과 공적 전체를 균형 잡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는 수년 간 백린 관련 서울대 및 하버드대 도서관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다행히 유족과 지인들을 만나 여러 도움을 받으며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백린 연구의 첫 발을 내딛게 된 동인이다.

지면 관계상 제약이 있지만, 백린의 전 생애[傳記]를 간략히 재구(再構)하고 소개하는 한편, 사서로서 그가 도서관학에 미친 영향과 업적이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거칠게나마 문제 제기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구(考究)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대학 도서관 사서였던 백린의 행적과 연구 성과를 처음 소개하고 그 의미와 위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II. 백린의 삶과 주요 행적

1. 성장기 및 서울대 도서관 근무 시절의 주요 행적

백린은 1923년 7월 24일, 서양인 선교사들의 선교 거점이었던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 신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朴泳孝) 집안으로 시집간 큰이모의 도움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았지만,¹⁾ 정작 백린 집은 워낙 가난했기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이에 12살 때 백린은 부모 몰래 가출해 홀로 무작정 만주로 갔다. 일본군이 다스리던 만주국의 수도 신경(현 장춘)에서 수년간 거지 생활하며 지내다가 일본인 신발가게 주인의 호의 아래 숙식을 해결하며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백린의 성실과 총기(聰氣)에 반한 주인이 그를 일본 고등학교까지 후원해 주었다. 그 덕분에 백린은 만주 일본실업학교에서 중국어와 한문, 그리고 일본어까지 배우고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까지 진학하기 어려웠던 백린은 곧바로 일본인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다 22살 때인 1945년에 고국이 해방되자 부모와 형제 생각에 10년간 소식이 끊겼던 선천 집으로 귀향했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오래전 월남한 상태였다. 백린도 휴전선을 넘어 낯선 도시 서울로 내려가 가족과 극적인 재회를 했다. 서울서 백린은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제대 부속도서관²⁾ 직원은 약 50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국인은 촉탁(囑託) 직원 신분으로 몇 명밖에 없었다.³⁾ 한국인에게 서적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여긴 까닭에서였다. 그러다 보니 해방 후 서울대 도서관은 사서가 부족해 새로 사서를 뽑아야 했다. 이때 백린이 우연히 채용 공고를 보고 1948년 11월 서울대 도서관 사서 채용 시험에 응시해 영어 시험을 치르고 당당

-
- 1) 백린(白麟)의 본명은 '백찬경(白贊慶)'이다. 평소 역사를 좋아한 데다 『한서(漢書)』에 등장하는 '흰 기린[白麟]'을 닮고자 성인이 된 후 '백린'으로 개명했다. 거기엔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고픈 젊은 백린의 반항심도 내포되어 있다. 오랫동안 백린 집안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큰 이모부(박영효의 손자 박태서) 집안에 잘 보이기 위해 박영효가의 돌림자인 '-찬-'자를 가져와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자 일가친척에게 기대거나 종속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일부러 개명한 것이다.
 - 2) 일제는 1926년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고 그 부속도서관을 설치해 1945년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 기간에 약 55만 권의 장서가 수집되었는데, 이 장서 대부분은 원래 조선 시대 규장각에 있던 것들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규장각이 이왕가(李王家) 도서관으로 격하되고, 규장각 장서들이 모두 이왕가 도서관으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이 설치되자, 이왕가 서고의 책들이 모두 부속도서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그 결과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이 한국 고서의 산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 3) 촉탁직은 일종의 임시직으로, 1905(광무9)년 일제가 을사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내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임시로 채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이왕직, 조선사편수회,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등에 일본인과 한국인 전문가를 임시 고용해 학술조사 등 전문 연구를 수행케 했다. 서울대 초대 도서관장을 지낸 김진섭(金晉燮) 교수와 초대 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구경, 그리고 훗날 이화여대 도서관장을 역임한 이봉순(李鳳順) 교수도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근무했다.

히 합격했다. 서울서 영어 교습서를 다니며 영어 공부했던 것이 주효했다. 역사학자인 이병도 도서관장의 눈에 띄어 동양 서적과 규장각 고서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문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서적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높게 샀다. 백린은 사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서울대 도서관 선임 사서인 장지태⁴⁾로부터 도서분류법부터 도서목록 작성법, 한적에 대한 각종 지식까지 배울 수 있었다(박병호, 1992, 7-8; 박종근, 2019, 361-367).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북한군이 규장각 소장 적상산 사고본 실록 등 여러 귀중본을 약탈해 갔다. 1.4 후퇴 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규장각 귀중본 도서를 부산으로 소개(疏開)하게 되었는데(민영규, 1966),⁵⁾ 이때 백린이 그 운송 및 부산에서의 보관 책임을 맡았다(백린, 1998). 부산에서 피난 와중에도 규장각 귀중본 고서 목록 작성을 위해 『조선고서해제』⁶⁾를 구해 상부에 보고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부산에서 1951년에 임시 개관했던 대학 도서관 업무를 중지하고 다시 서울로 와 도서관 재개관 준비를 맡았다.

재개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백린은 방치되어 있던 규장각 현판들을 다수 발견하기도 했다.⁷⁾ 또한 도서 정리 및 재개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어 수개월간 밤새워 도서를 정리하고 분류한 결과, 1954년 1학기부터 서울대 도서관은 성공적으로 재개관할 수 있었다.

도서관 업무가 정상화되자, 1955년부터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자체 사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가르칠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때에 제1회 도서관 실무 강습회에서 백린도 유경력자로서 총 130시간을 강의했다(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38).⁸⁾ 도서분류법, 도서목록법, 일반동양서목록법, 서양서목록법, 열람실무 등 실무 강습회의 수업을 백린이 맡아 가르쳤다.

- 4) 장지태(張之兌, 1892~1962)는 구한말에 내각(內閣) 주사(主事)로 규장각 서리였던 서은(西隱) 장홍식(張鴻植, 1866~1950)의 아들이다. 중인 서리 집안 출신인 장홍식은 해방 전에 규장각이 참서관 분실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규장각 도서를 관리해 왔다. 1926년 규장각이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할 때까지 실무 책임자로서 규장각 도서를 관리했다. 그 후 장지태가 부친의 뒤를 이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시무를 물려받았다. 해방 전 규장각 도서목록을 만들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초대 사서관이 되었다. 초서 해독이 완벽했던 장지태는 1950년대에 서울대 도서관 소장 고문서 정리를 최초로 행하기도 했다. 백린은 이런 장지태의 업무를 보고 배우며 고서 정리 및 분류에 힘썼다.
- 5) 훗날 민영규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규장각 소장 고서 후송 작전을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던 백낙준 박사는 트럭 8대를 긴급 동원해서 그중 5대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남은 3대를 국립도서관으로 보냈었다. 규장각 도서 중 『승정원일기』 3천여 책과 『왕조실록』 강화본, 태백산본, 그리고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6천 3백여 책이 부산으로 소개된 것은 이때 5대의 트럭 덕분이었으려니와 나머지 대부분의 도서는 물밑듯이 닦쳐오는 적군에 송두리째 맡길 수밖에 없었다.”
- 6) 1919년에 간행한 『조선도서해제』를 1932년에 증보 발행한 책이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에서 정무총감 직속 하에 참서관실을 두고 조선 통치를 위해 규장각 도서를 조사해 만든 것이다. 조선사 연구자인 경성제대 교수 오다 쇼구[小田省吾], 임나일본부설을 정립한 일본사학자 스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 한국 고서 목록 『고선책보(古鮮冊寶)』를 쓴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등 저명 학자들이 참여했다.
- 7)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걸려 있는 현판 ‘규장각학사지서(奎章閣學士之署)’, ‘수교 수대관문형비선생모득승당(受敎雖大官文衡非先生母得昇堂)’, ‘수교 객내불기(受敎 客來不起)’ 등을 백린이 처음 발견했다.
- 8) “당시 서울대학원장인 이병도 교수가 이전 도서관장의 경험을 살려 ‘고문서분류법’을 강의했다. …(중략)… 교수가 아닌 강사로는 신재숙 한미재단도서책임자, 백린 서울중앙도서관 사서계장, 장지태 중앙도서관 고서책임자 등이 있었다.”

1956년에는 서울대 도서관 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네소타 대학 농과대학 도서관장인 오스트볼트(H. Ostvold) 교수가 초청되었다. 오스트볼트 교수는 서울대 도서관 사서 연수를 담당함과 동시에 도서관 내 필요 사항을 조사해 서울대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때 백린은 오스트볼트 교수를 따라다니며 통역 일을 하고, 오스트볼트 교수와 함께 한국식 도서 목록 분류안을 만들어 제안까지 했다(Ostvold, 1956).⁹⁾ 오스트볼트 교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오스트볼트 보고서』에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전문 사서 양성을 제안했는데, 특별히 백린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 사서 연수 책임자로 추천했다(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63).¹⁰⁾

언어 능력, 학문적 배경,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백린 사서를 6~9개월 정도 미국에 연수시켜야 한다. …(중략)… 이는 강력히 요구된다. 서울대학교 전체 대학 도서관 체계는 운영 기술을 갖춘 전문 사서를 한 명 가지게 됨으로써 캠퍼스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63).

오스트볼트 교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서울대는 백린을 도서관 사서 국외 연수자로 처음 선발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신체검사 도중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고 미국 연수 또한 취소되고 말았다(박종근, 2000, 6). 하지만, 십 수 년 뒤에 백린은 결국 하버드대 도서관 사서가 됨으로써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평소 백린은 사서라면 교수와 상대할 만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무식한 사서는 사서가 아니다.”라며 교수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박종근, 2000, 8).¹¹⁾ 그리고 자신부터 공부하는 사서로서 평생 그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늘 현장에서 고문헌과 전적 자료를 가지고 씨름한 것을 각종 글로 발표하고,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헌신했다. 백린이 이처럼 공부에 대한 갈증이 컸던 것은 어린 시절 가난으로 제대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데다 20대에 서울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내몰린 탓에 공부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었다. 백린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단국대 지리역사학과에 입학해 만학도로서 대학 공부를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 9) “도서 분류는 듀이 십진분류법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채용할 것을 권한다. 백린과 함께 만든 유일한 수정은 950 역사 부문에서 나타났다. 951을 한국, 952를 중국, 953을 일본에 할당할 것이 제안되었고 …(중략)… 도서 목록은 합리적인 단순성을 지닌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도서관협회 규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 방법이 한국 전체에 퍼지고 이 목록이 국내에 배포되면, 한국도서관협회를 위하여 매우 유익할 것이다. 백린과 나는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낡은 타이프라이터와 얇은 종이를 가지고 저자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 10) “서울대학교 전체 도서관 세계에는 단 한 명의 훈련된 사서도 없다. 심지어 일제하에서 사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한 명 없다. 도서관 방법론에 친숙한 단 한 명의 사서는 독학한 것이며, 그는 통역을 할 수 있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중앙도서관의 사서인 백린이다.”
- 11) “여러분들은 항상 사서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서 교수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행운도 있었다. 1956년 12월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의 전신)가 신설되었는데(연세대학교 편, 2002, 14) 학과 운영을 위해 부설 도서관학당을 임시로 만들어 운영했다. 이 학당은 1기를 1년으로 하고, 당시 도서관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사서 심화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백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서관학당 제1기로 입학해 1958년에 첫 번째로 수료했다. 훗날 각각 연세대와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된 이재철, 이춘희가 백린의 동기생이었다. 당시 도서관학 과목을 가르칠 교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린도 이재철과 함께 학생이자 강사로서 몇 과목을 맡아 직접 가르쳤다. 당시 신설된 도서관학과 운영을 위해 외국인 교수가 여러 명 참여했다.¹²⁾

1961년 단국대 역사지리학과를 졸업한 백린은 곧바로 연세대 도서관학과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다. 그리고 1963년에 석사논문 『규장각 장서에 대한 연구』를 제출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학부 공부는 남들보다 많이 늦었지만, 도서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첫 세대로서 다른 사서들보다 크게 앞선 셈이 된다. 백린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 도서를 늘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장각 소장 도서의 성격, 종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학술적 글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처음 선보일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규장각 소장 도서에 관해 쓴 첫 번째 도서관학 학위논문이다.

1960년에 백린은 탁월한 직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립대 도서관 최초로 사서관(오늘날의 사서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73년 하버드대로 옮겨갈 때까지 약 12년 동안 서울대 도서관 사서과장으로 근무했다(마미경, 2017, 58). 그 시절, 백린은 일본에 반출된 규장각 고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결정적 서류를 발견했다. 1965년 규장각 도서 정리 중 우연히 1911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취조국 문서철을 발견했는데, 그 서류 속에 조선 초대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6-1909년 재임 당시 규장각 도서 1,000여 권을 반출해 간 목록과 조선 총독 테라우치에게 보낸 공문 등이 들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토 히로부미가 1907년 7월경부터 규장각에서 개인적으로 불법대출한 도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¹³⁾ 이에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렸고, 정부는 여러 기관과 합심해 일본에 도서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마침내 불법 반출되었던 규장각 도서가 2차례에 걸쳐 반환되었다.¹⁴⁾ 이런 규장각 소장 도서 반환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백린이었다.

12)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맥리 엘로드(J. McRee Elrod) 선교사를 비롯해 에델 스와이거(Ethel Swiger), 로버트 버제스(Roberts S. Burgess), 케네스 크로스린(Kenneth Croslin)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스와이거 교수가 연세대 도서관학과 설립을 주도했고, 엘로드는 후에 연세대 도서관 부관장과 도서관학과 교수를 지냈다. 엘로드는 '엘로드 저자기호법'으로 알려진, 저자명 문자식 기호법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13) 77부 1,028권이나 되는 적지 않은 양이었다. 빌려 간 책 중에는 최치원의 『계원필경』, 이수광의 『지봉유설』, 『퇴계언행록』, 『충무전서』, 송시열의 『우암집』, 『동문선』처럼 귀중한 고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4) 백린이 서류를 발견한 이후 '한·일 문화재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11종 90책이 반환되었다(서화동, 한국경제, 2010. 11. 14.). 그 후 45년이 지난 2010년에 나머지 책들이 반환되었다. 2010년 반환된 반출 도서 150종 1,205책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불법대출해 갔던 규장각 도서 66종 938책이 포함되었다(한국경제, 2015. 11. 9.).

2.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 사서와 미국 생활

1969년에 서울대-하버드대 간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간 서울대 규장각 소장 고서 전시회가 하버드대에서 열렸다. 이때 서울대 도서관은 전시회 기간에 대여 고서를 관리 책임지고, 선진 미국 도서관 시스템과 업무를 연수받고 올 사서 파견을 결정했는데, 백린이 다시 낙점되었다. 당시 하버드대 도서관에서도 엔칭 도서관 소장 한적(漢籍)을 정리할 고서 전문 사서 파견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양쪽의 이런 요구 조건이 잘 맞아 백린이 1년간 하버드대 도서관에 파견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다.

백린은 1년간 미국에서 사서 연수를 겸해 고서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데 하버드대 한국학과 와그너(Edward W. Wagner, 1924-2001) 교수가 다시 백린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¹⁵⁾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백린처럼 고서를 취급하고, 교수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는 연구 사서를 원했는데, 1년 파견근무 때 백린을 직접 보고 확인했던 것이다. 결국 백린은 가족과 상의 끝에 1973년 50세의 나이에 안정된 서울대 도서관 사서 직을 사임하고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 사서라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택했다.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에 한국학 서고가 처음 마련된 것은 1951년의 일이었다. 그 후 꾸준히 한국 고서와 일반 서적을 10여 년간 구입하고 다수의 기증까지 받게 되자, 1950년대 후반에 이미 중국과 일본 서적 다음으로 많은 장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1958년에 와그너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게 되자 그를 도와줄 전문 사서로, 백린과 같은 선천 동향인(同鄉人)인 김성하(金聖河)가 초대 한국학 전문 사서가 되었다. 김성하의 헌신과 노력으로 단기간에 하버드대 한국학 서고가 세계 최고의 한국학 자료 및 연구 중심지가 되었다(윤충남, 2001, 81-33). 그런데 김성하는 영어에는 능했지만, 한문 서적과 고서를 다루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백린이 1970년대 초 엔칭 도서관에 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백린 합류 이후 김성하는 도서(자료) 수집 및 기획자(Collector)로서, 백린은 입수한 한적과 각종 서적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목록 사서(Cataloger)로서 역할 분담을 했다.

백린은 1973년부터 1991년까지 18년 동안 엔칭 도서관에서 근무했다. 책의 내용과 주제를 알아야 자료의 최종 소속(분야)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록 사서는 전문 사서로서 폭넓은 지식과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었다. 1970-80년대만 해도 신문과 잡지, 책은 모두 국한문혼용체였고, 한자로 적힌 고서들도 다수 입고되었다. 그러니 한자 제목을 읽고 책 속 본문 내용까지 이해해야 도서 분류와 주제어 지정 등이 가능한데, 미국에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서가 극히 적었기에 백린이 그 일을 책임졌다.

15) 미국 내 한국학 개척자이자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며 조선시대 사회(史禍)와 족보 연구로 일가를 이룬 사학자이다. 1950년대 후반 서울대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갔을 때 사서 백린과 인연을 맺었고, 한중일 자료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백린이 엔칭 도서관에 필요하다 판단해 1970년대 초 백린을 직접 스카우트했다.

백린은 한국에서 온 방문학자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 등지에서 온 외국인 연구자들과 자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영어가 아닌 한자로 필담을 주고받았다. 방문교수로 하버드대에 온 연구자들은 자료 조사 목적이 컸기 때문에 백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대학교수들과 자주 교류하며 그들의 연구를 돕는 한편, 본인도 연구하는 사서로 생활했다(이광린, 1990).¹⁶⁾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대에 컴퓨터가 보급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모두 전산화하고 모든 업무 처리도 전산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 중인 하버드대 도서관 자료검색 온라인 시스템(HOLLIS)이 1988년에 처음 구축되었다. 컴퓨터 전산 작업이 익숙지 않았던 백린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아날로그 식 도서 분류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나 더 이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백린은 1991년 69세에 도서관 사서 직을 내려놓았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25년,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에서 18년, 도합 43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달려 온 사서 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하지만 퇴임 직후 단국대 역사학과 윤내현 교수(당시 도서관장)의 초청을 받아 학부 모교인 단국대 문헌정보학과 특임교수로 1년간 한국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 손자뻘의 후학들에게 사서 업무 내용과 각종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95년에 한국을 개인적으로 다시 찾았다.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 도서관 50년사를 집필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도서관의 초창기 역사(1948-1973)를 회고하며 다양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당시 백린이 회고한 내용은 고스란히 『서울대학교 도서관 50년사』(1996)에 담겼다(박종근, 2000).

백린은 미국 정착 직후인 1970년대 중반부터 보스턴 한인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8년부터 8년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했는가 하면(뉴잉글랜드 미주한인 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 편, 2004) 이민자 한인들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연구를 병행했다. 1982년부터 뉴욕 한국일보에 「뉴잉글랜드를 찾은 한인들」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과 한국 관계사를 소개하고, 개화기 지식인들의 자취를 그려냈다. 특별히 「갑신정변과 망명 유학생」이란 제목 아래 초창기 한인 유학생, 즉 서광범(徐光範, 1859-1897), 변수(邊燾, 1861-1892), 그리고 서재필(徐載弼, 1864-1951), 이 3인의 한인 유학생의 생활 행적을 자세히 밝혀내고 이들의 생활과 역할을 조명한 글(백린, 2001-2002)은 주목을 요한다. 2004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는 백린이 그동안 모았던 한인 이민사 연구 자료와 개인 장서 1,082권을 기증받았다. 기증 자료는 대개 미국 이민사, 한미관계사,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내 별도로 마련된 '백린문고'에 그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16) 백린에게 신세를 졌던 교수 중에는 서강대 역사학과 교수 이광린, 고려대 철학과 교수 도올 김용옥,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영우, 단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윤내현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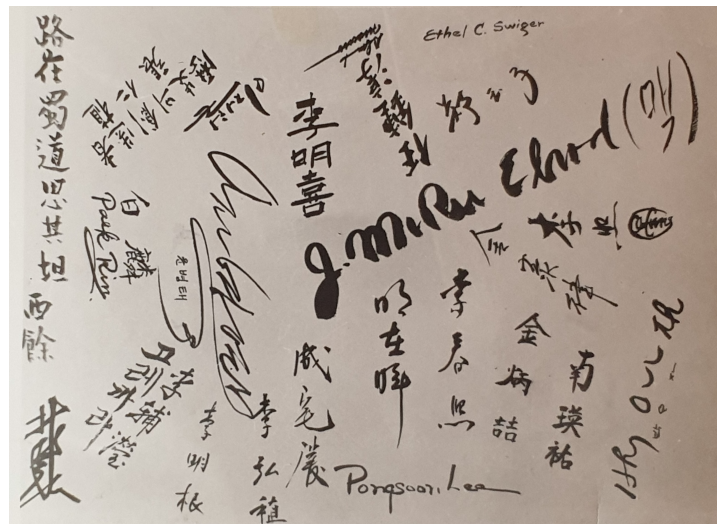
퇴임 후에도 활발히 글을 쓰고 역사 연구를 하며, 한결같이 지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백린은 2015년 9월 93세를 일기로 보스턴에서 눈을 감았다. 현재 백린은 보스턴 Forest Hill 묘지에 잠들어 있다.

3. 사서로서의 대외활동과 교우 관계

만 50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백린은 서울대 도서관 사서로서뿐 아니라 사서 모임과 도서관 관련 기관에서 실무 책임자 겸 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도서관 업무에서 전문성을 보여준 백린은 대외 활동에서도 적극적이었다.

백린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설립될 때 창립 멤버로서 간사 일을 했다. 이후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사, 평의원 등의 자격으로 기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박종근, 2000, 7-8). 도서관 규정 및 정리 규칙을 제정하는 일에 관여했고,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제정 시에도 적극 참여했다. 국립대학도서관장회의(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신)에도 실무자이자 임원으로 활동했다.

1960년대 중반 이전에 도서관학 관계자들과 연구 모임을 갖고, 다양한 협회 활동에 참여한 백린의 교우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그림 1〉 참조). 백린을 비롯해 민영규, 이재철, 이봉순, 성택경, 이춘희, 이홍식, 이명근, 윤병태, 이명희, 장인식, 정옥자, 김병철, 남영우, 김태을, 임중순, 그리고 맥 엘로드, 에텔 스위저 등 연세대 도서관학과 소속 미국인 교수들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은 대개 국내 도서관 사서 또는 도서관학 연구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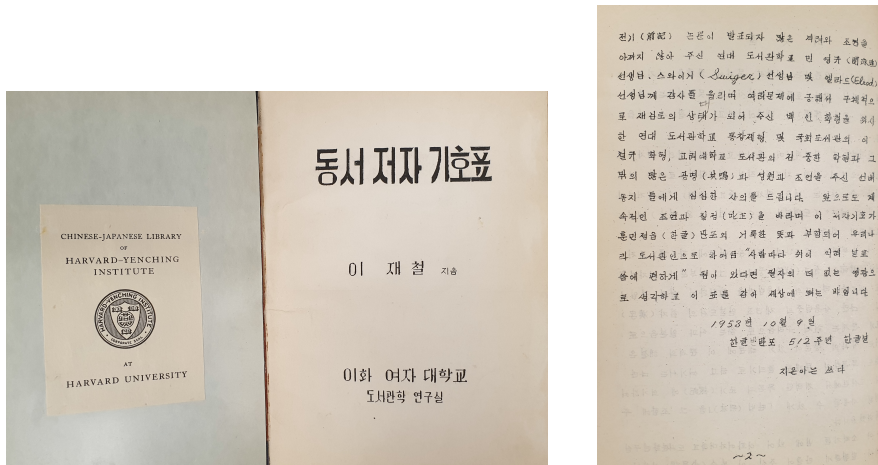
〈그림 1〉 도서관 관계자 모임 후 작성된 참여자들의 친필 서명록. 유족 제공. 필자 ©

서명자 중 서여(西餘) 민영규(閔泳珪, 1915-2005)는 연세대 도서관장과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지낸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고서·서지학·중국학·불교학 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대학자다. 민영규가 한국도서관협회장직을 맡았을 때, 백린이 협회 분과위원장과 총무간사로서 열심히 일했다. 백린의 석사논문을 지도했을 뿐 아니라, 하버드대 도서관으로 이직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좌측 끝부분에 민영규 교수가 세로로 쓴 “노재축도사기탄(路在蜀道思其坦)”이란 글귀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¹⁷⁾

외국인 중에는 맥리 엘로드(J. McRee Elrod)의 이름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 설치를 건의하고 학과 설립을 주도했다. 연세대 초대 도서관학과 교수뿐 아니라 도서관 부관장을 지냈다. 저자명 문자식 기호법을 처음 고안한 이가 바로 엘로드 교수다. 그가 만든 엘로드 저자 기호법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Pongsoon Lee’라 쓴 이는 오랫동안 이화여대 도서관장을 지낸 이봉순(李鳳順, 1919-2013) 교수다.¹⁸⁾ 그런가 하면 국회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성택경(成宅慶)¹⁹⁾은 백린과 함께 한국서지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에 성균관대 도서관학과가 창설되었을 때 원년 멤버 중 한 명이자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역임한 이춘희(李春熙, 1928-2018) 교수의 이름도 보인다. 그 역시 백린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재철(李在喆)은 백린과 동고동락한 지우(知友) 중 한 사람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멤버 중 유일한 한국인 교수이면서 백린과 같이 연세대 도서관학과에서 공부했다.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 교수로 지내다 퇴임했는데, 오늘날 사용하는 저자기호표를 처음 제안하고 그 사용 규정을 표준화했다(이재철, 1958).²⁰⁾

- 17) “(비록) 길이 촉나라 땅으로 가는 험난한 길[蜀道]과 같더라도 그 길이 평탄하기를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설령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반대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것을 격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래 축도(蜀道)는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가 세운 촉나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촉나라가 있던 쓰촨 성[四川省]에 가는 길이 워낙 험준하고 위험해 온갖 시련을 상징하는 의미로 문학 작품에서 종종 사용되곤 했다.
- 18)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1940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촉탁 사서로 일했다. 1951년부터 2년 동안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도서관학을 공부해 미국식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제1세대 유학생이다. 귀국 후 1955년 4월부터 1985년 2월까지 30여 년간 이화여대 도서관장과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 19)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966년 5월 23일에 ‘정사서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때 제1호로 발급받은 이가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이종문(현 암백스벤처그룹 회장)이고, 제2호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백린, 그리고 제3호가 바로 성택경이었다.
- 20) 일찍이 1958년 『도협월보』 7, 8월호에 저자기호표 제1표와 제2표 시안을 발표하고, 그해 10월에 제2표와 그 사용법이 수록된 초판 『동서저자기호표』를 발간했다. 이 초판은 총 24쪽 분량의 등사본으로, 속지 제목은 ‘동서저자기호표 및 그 사용규정’이었다. 이것은 연세대 도서관학과가 아닌 이화여대 도서관학 연구실에서 출판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 『한글순도서기호법』(아세아문화사, 1982)에서 저자기호를 완성했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절반 이상이 이재철 저자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마련한 저자기호법이 한국 도서관 분류에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에도 이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 2〉 이재철이 『동서저자기호표』(1958) 『머리말』에서 책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해 준 백린에게 사의를 표한 내용이 보인다.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소장본. 필자 ©

연세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을 지낸 임중순(任鍾淳)은 백린과 가장 가까웠던 단짝 친구이자 동료였다. 임중순과 백린은 공저로 『나려문적지(羅麗文籍志)』(1970)를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도서관에서 백린과 함께 사서로 근무했던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병태(尹炳泰, 1933-2004)의 이름도 보인다.²¹⁾ 백린이 『내사기(內賜記)와 선사지기(宣賜之記)에 대(對)하여』(1969a, 6-8)에서 조선 시대 서적 배포 시 사용하던 어보(御寶), 일명 옥새인 '동문지보(同文之寶)'에 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십수 년이 지나 윤병태가 백린의 글을 보충해 『내사기(內賜記)와 내사인기(內賜印記)』(1983)라는 글을 다시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시립도서관장(1954-1967)을 역임하고 『공공도서관』(1971)을 쓴 장인식(張仁植)(안정현 외, 2021), 한양대 중앙도서관 사서장을 지낸 김태율(金泰律, 1925-1964), 휘문 중고등학교 사서 교사였던 남영우(南瑛祐), 그리고 오랫동안 연세대 중앙도서관 사서로 재직하던 이명근(李明根)의 이름도 눈에 띈다. 1964년에 작고한 김태율의 행적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고(故) 김태율(金泰律) 선생 소전(小傳)』을 『도협월보』에 발표하기도 했다(백린, 1964, 32-34). 백린이 김태율 소전을 쓴 시기를 고려할 때, 김태율의 서명이 들어 있는 위 서명록은 늦어도 1964년 이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위 서명록은 1960년대 주요 사서들과 관계자, 도서관학 연구자들의 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백린의 교우 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까지 확인할 수 있다.

21) 윤병태는 한양대, 서울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등의 사서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와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임했고,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학문적으로 활자, 서지, 고인쇄, 도서 등 서지학 부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국의 고활자』,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조선조활자고』가 대표적인 저서다.

Ⅲ. 연구 사서로서의 학문적 성과

1. 49편의 소논문(학술기사)과 7종의 단행본

백린이 쓴 첫 번째 학술적 글은 규장각 장서의 역사에 관해 쓴 연세대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이었다. 백린은 규장각의 역사를 먼저 개관한 뒤, 규장각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장서각의 장서 정리 내용과 장서 목록을 통시적 관점으로 서술했다. 특별히 규장각 장서가 구한말 시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변천사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규장각 장서에 관한 논문을 쓰려다 보니 강화도 정족산성 내 전등사 경내에 있었던 강화사고와 강화행궁 뒤편에 있던 강화 외규장각을 세 번이나 답사했다. 백린은 학위논문에서 규장각의 역사를 처음으로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소장 장서를 대상으로 그 서지 정보를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분류했다. 백린이 서울대에서 간행된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1965)의 집필과 실무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석사논문을 쓰며 규장각 소장 고서 분류 및 서지 정보 정리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석사학위를 받은 백린은 낮에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밤에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이들 대학에 가서 한국서지학과 도서분류법, 고서목록법, 한국도서관사 등을 강의했다. 당시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등사판으로 『도서목록법입문』, 『분류규정』, 『고서목록규칙』 등의 책을 직접 제작해 강의 보충용 교재로 사용했다.

백린은 평소 다른 사서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갖곤 했다. 초창기 서울대 도서관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활동했던 도서관 지기(知己)인 장지태, 계훈모, 류동렬, 계병진, 이상은 등이 있었다. 백린은 이들과 함께 도서관의 역사와 고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도서 관리 및 정리, 분류에 관해 현장에서 터득하거나 새로 접한 서지학 정보와 이론을 공유하고, 자신의 주장을 지면상에 발표했다.

1962년에 연세대 도서관학과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인 1959년부터 백린은 이미 우리나라 도서 분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학술적인 글을 여러 편 발표했다. 대한교육협의회 발행 논문집인 『새교육』에 『도서목록법 해설』(1959)을 처음 투고한 이후로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인 『도협월보』에 『도서목록법 입문(1-6)』(1960), 『분류 규정(1-6)』(1960)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체계적인 도서분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학구열로 충만했던 백린은 미국 이민 전 십수 년간 여느 대학 교수 못지않게 수십 편의 학술기사(소논문)를 발표했다. 아래 <표 1>은 도미(渡美)하기 전 서울대 사서로 근무하던 시절에 백린이 쓴 글들을 모두 모아 본 것이다. 백린의 관심사와 연구 범위, 그 성과를 한눈에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 소논문(학술기사) 목록

연번	연도	글(책) 제목	학술지명/권(호)/면수	출판사 (발행기관)	비고
1	1959.02.	도서목록법 해설	새교육/11(2)/46-48	대한교육협의회	학술기사
2	1960.03.	도서목록법 입문	도협월보/1(1)/15-20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3	1960.04.	도서목록법 입문(2)	도협월보/1(2)/17-25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4	1960.05.	도서목록법 입문(3)	도협월보/1(3)/16-20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5	1960.06.	도서목록법 입문(4)	도협월보/1(4)/25-30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6	1960.07.	도서목록법 입문(5)	도협월보/1(5)/20-24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7	1960.11.	분류규정(1)	도협월보/1(8)/23-27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8	1960.12.	분류규정(2)	도협월보/1(9)/32-36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9	1961.01.	분류규정(3)	도협월보/2(1)/53-56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0	1961.03.	분류규정(4)	도협월보/2(2)/30-34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1	1961.05.	분류규정(5)	도협월보/2(3)/15-20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2	1961.06.	분류규정(6)	도협월보/2(4)/17-21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3	1962	책자와 접감	도협월보/3(3)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4	1962	규장각 장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15	1963.05.	규장각과 그 장서의 변천	도협월보/4(4)/8-15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6	1963.09.	오대산사고본의 이동에 대하여	대학신문	서울대학신문사	독자투고
17	1964.09.	고(故) 김태율(金泰律) 선생 소전(小傳)	도협월보/5(7)/32-34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18	1964.09.	고문서의 연구와 그 정리 문제	국회도서관보/1(4)/ 101-110	국회도서관	학술기사
19	1964.12.	규장각약사 2	도서관보/2/6-28	서울대도서관	학술기사
20	1965.11.	고판본의 장정(裝幀)과 판심(版心)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2(11)/	국회도서관	학술기사
21	1965.12.	한국 고찰자본에 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3/3-50	국회도서관	학술기사
22	1966.03.	고서의 장정(裝幀)과 판심(版心)에 대하여	도협월보/7(2)/6-10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23	1966.06.	고서 분류법에 대한 소고	도서관/106/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24	1966.07.	현대 분류법에 대하여	도협월보/7(6)/6-16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25	1967.01	계유(癸酉)·경신(庚申)·무오자(戊午字)에 대하여	도협월보/8(1)/25-32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26	1967.12.	사적(史籍)순례	도협월보/8(10)/13-19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27	1967.12.	공공도서관의 역할	남산도서관보/1/27-32	서울남산도서관	학술기사
28	1968.09.	이등박문(伊藤博文)에 대출한 규장각도서에 대하여	서지학/1/19-26	한국서지학회	학술기사
29	1968.09.	목록학의 개념과 고서 목록의 기술 문제	도서관/128/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30	1968.12.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과 인쇄카드에 대한 제언	도서관보/6/7-17	서울대도서관	학술기사
31	1969.01.	중국 상고시대의 문고와 전적에 대하여(1)	도서관/131/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32	1969.02.	중국 상고시대의 문고와 전적에 대하여(2)	도서관/132/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33	1969.03.	한대(漢代) 및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도서관사	도협월보/10(2)/2-11, 21.	한국도서관협회	학술기사
34	1969.03.	조선후기 활자본의 형태서지학적 연구(상)	한국사연구/3/123-154	한국사연구회	학술기사
35	1969.06.	조선후기 활자본의 형태서지학적 연구(하)	한국사연구/4/133-166	한국사연구회	학술기사
36	1969.06.	한국서지관계문헌목록	서지학/2/62-76	한국서지학회	학술기사
37	1969.07.	개화기의 한국도서관 운동	아세아/1(6)/155-160	아세아사	학술기사

연번	연도	글(책) 제목	학술지명/권(호)/면수	출판사 (발행기관)	비고
38	1969.10.	Library Movement in the Enlightenment Period	Korea Journal / vol.9 no.10 / pp.8-10	Korean National Commission	학술기사
39	1969.10.	내사기(內賜記)와 선사지기(宣賜之記)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6(8)/8-19	국회도서관	학술기사
40	1971	보스턴 체류기	도협월보/10(2)/	한국도서관협회	수필
41	1971	나의 제언	도협월보/10(2)/	한국도서관협회	수필
42	1971.04.	집현전과 장서각(1)	도서관/155/52-60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43	1971.05.	집현전과 장서각(2)	도서관/156/21-26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기사
44	1971.06.	태백산사고소장본에 대하여	도서관보/8(1)/	서울대도서관	학술기사
45	1972.04.	향산실록록서이안우무주적상산형지안 (香山實錄曝書移安于茂朱赤裳山形止案)	국학자료/2/18-20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학술기사
46	1972.03.	(손보기 저) 한국의 고향자	한국사연구/7/227-230	한국사연구회	서평
47	1972	전주사고와 동장서(同藏書)의 소개 경위에 대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1/	한국비블리아 학회	학술기사
48	1972.02.	한국 고지도	도서관보/8/17-25	서울대도서관	학술기사
49	1973.07.	경성도서관에 대한 소고	남산도서관보/3/80-86	서울남산도서관	학술기사

백린이 쓴 학술적 글은 도서관 사서들이 필히 알아야 하는 도서목록법과 분류 규정안 등뿐 아니라 규장각과 실록 사고, 고문서와 활자본 자료, 도서관 역사, 서지학 자료, 사서 평전 등 서지학과 도서관학 분야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학술 기사뿐 아니라 수필과 서평도 수 편 존재한다.²²⁾ 편수 면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도서관학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도서관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백린이 문헌학(서지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비단 학술적 기사(소논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행본 저작물에서 더 빛이 난다.

〈표 2〉 편·저서 및 역서 목록

연번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1	중국, 일본 및 한국 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 규칙과 편람	연세대 도서관학과 조지 피바디 대학	1959	번역서
2	도서분류표 ²³⁾	한국도서관협회	1960	편찬서
3	규장각 장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도서관학과	1962	석사학위논문
4	고서목록규칙(Catalog rules for oriental classics)	서울대 중앙도서관	1966	편찬서
5	한국고활자표본철		1967	〈한국의 고향자〉 서평에서 본인 소개
6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69	저서
7	나려문적지	국회도서관	1970	공저 (백린·임종순)

22) 필자가 찾은 49편 이외에 백린의 다른 글이 더 있을 수 있어 계속 보완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본 제시 목록은 향후 백린 연구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린이 남긴 단행본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자. 백린은 총 7종의 책을 내놓았다. 선편은 『중국, 일본 및 한국 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 규칙과 편람』(1959)이라는 번역서다. 미국 도서관협회와 국회 도서관 동아시아 자료 정리위원회에서 1957년에 한·중·일 삼국의 동양 자료 정리를 위해 만든 규정(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을 번역한 것으로, 정광현 서울대 도서관장과 민영규 연세대 도서관장의 지도를 받아 백린이 연세대 도서관학과 동기들과 함께 번역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도서관협회 규정(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ules)의 개정과 미국의회도서관(LC, library of Congress)의 목록 규정 개정 사안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번역 덕분에 로마자 번자표(McCune-Raischauer System)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백린, 1959).²⁴⁾

『고서목록규칙』(1966)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대적 고서 목록 규칙 제정 요청을 받아 백린이 쓴 책이다. 기존의 동양서 분류법인 경사자집(經史子集)처럼 유별(類別) 목록에 기초하거나 서명(書名)을 주 표목으로 삼아 작성하는 것이 검색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백린이 총대를 메고 근대 서적 목록 분류에 사용하는 기준을 준용해 세세한 규칙을 만든 것이다.

백린은 규장각에서 고활자 인본들을 다수 취급하면서 국내 활자본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내 중요 고활자 인본(印本)의 표본 40종을 모은 『한국고활자표본첩』(1967)을 선보였다.²⁵⁾ 백린이 몇 년 후 손보기 교수의 저서 『한국의 고활자』(1971)에 대한 서평(백린, 1972)을 쓴 것도 이런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려문적지』는 하버드대 도서관 사서 연수를 겸해 1년간 미국 파견근무를 마치고 1970년에 돌아온 직후 출판한 것이다. 연세대 도서관 사서 과장인 임중순과 함께 신라와 고려 때 활동한 문인 중 문집을 간행한 153인의 저작을 한국에 모았다.²⁶⁾ 일종의 서목 겸 집성 자료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자료목록의 배열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고 권말에는 색인까지 있어 고려 말까지 나온 문집의 서지정보를 살피고자 할 때 대단히 유용하다.

23) 백린이 편찬한 총 112쪽 분량의 도서분류표.

24) 이 규정에 의하면, 동양 삼국의 인명(人名)을 기입하려면 로마자로 번자(翻字)한 형식을 기재하되, 나라별로 조금씩 달리 적으면 되었다. 예컨대, 중국인의 이름은 웨이드 자일스(Wade-Giles) 표기법에 의거해 로마자로 번자하고 일본인 이름은 수정된 헤번(Hepburn) 식으로, 그리고 한국인 이름은 맥쿤-라이샤워(McCune-Reischauer) 표기를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자로 제목을 썼을 경우,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 음에 따라 로마자로 번자한다는 식의 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었다.

25) 손보기 교수가 출판한 『한국의 고활자』(1971)에 대해 백린이 쓴 서평에서 백린이 스스로 『한국고활자표본첩』의 존재를 밝혀 놓았다(백린, 1972, <한국의 고활자> 서평, 『한국사연구』, 7, 229). 그러나 필자는 그 실물을 아직 보지 못했다. 정식으로 출판된 책이 아니라 등사본 형태의 것이 아니었나 한다. 문화재관리국장서각사무소에서 비매품으로 내놓은 『한국고활자본첩(韓國古活字見本帖)』(1973)과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확정하기 어렵다.

26) 처음에 저자의 성명과 생몰년, 다음에 저자의 간략한 전기(傳記)가 소개되어 있다. '저서·편(編)·작품·문헌 등의 항목을 두어 관계된 문헌 이름을 열거하고, 저작의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자세한 서지기술(書誌記述)과 함께 소장처를 약칭으로 표시했다. 또한 문헌상으로만 알려진 것은 문헌 명을 밝혀 놓았다.

한편, 백린의 저서는 아니지만, 백린이 개인적으로 일평생 남긴 결과물 중 가장 애착과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다.²⁷⁾ 서울대 도서관에서 만든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1965)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대 도서관은 1960년부터 규장각 도서 정리 계획을 세웠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규장각 도서목록이라 하면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만든 도서대장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시절에 만든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이 전부였다. 그래서 백린은 윤병태(후에 충남대 교수), 이형인(서울대 사서관), 김광영(철학박사), 박종근(서울대 사서 서기관), 김옥자(서울대 사서과장) 등에게 서지정보 정리 방법을 알려주고 다 같이 목록 작성에 참여케 했다. 한국본 16만여 책에 대한 저자 목록, 서명 목록, 분류 목록 등 카드 목록을 완성하는 데만 4년이 소요되었다. 목록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하버드대 엔칭 연구소가 전폭 지원해 준 덕분에(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편, 1965) 규장각 도서 16만 권을 집대성한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2. 최초의 한국 도서관사 집필과 연구 지평

백린의 학자적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바로 『한국 도서관사 연구』(1969b)다. 국내 최초로 도서관의 역사를 개관해 기술한 전작 저서로 도서관사 이해의 근간이 된다.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 제국기까지 국내 도서관의 역사를 일정한 사관(史觀) 아래 그 요강(要綱)을 정립해 놓았다. 백린이 고서 관리, 목록 정리를 하면서 갖게 된 연구 역량과 식견이 총 집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국내 도서관 연구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저작물이자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려면, 기본적으로 옛 문헌자료 원문을 찾아 읽고 이를 하나의 일정한 사관 아래 시대를 구획하고 시대별로 그 자료의 의미를 추출해 그 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더욱이 도서관사 사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역사적 자료에서 도서관 역사를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백린이 도서관사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도서관 사서이자 역사학도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도서관사 기술은 전공 학자나 연구자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작업이다. 더욱이 선행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도서관 역사를 처음 설계하고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1969년에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도서관사 연구』가 지닌 존재 가치와 의의는 자별(自別)하지 않을 수 없다.

백린의 도서관사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도서관인 규장각의 소장 자료와 규장각의 역사에 관심 갖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후로 도서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장될 수 있었다. 또한 석사학위 취득 후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의 도서관학과에서 도서관사를 강의하게 됨에 따라 강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더 뒤지고 스스로

27) 이 책의 집필진 이름 중에 정작 백린은 없다. 이는 당시 서울대 교수만 집필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구 경력이 축적되어 도서관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통시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백린 이전에 박희영이 도서관사 연구를 위한 자료를 『도협월보』(1960-1963)에 여러 번 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시대별로 단편 자료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백린 이후로는 2017년에 송승섭과 함께 도서관사를 연구한 모임에서 일련 성과를 내놓기 전까지 이춘희(1995), 박문열(1996), 김동환(2005) 등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근대개화기 등 특정 시기, 특정 기관에 초점을 맞춰 국내 도서관의 역사를 다루었지만, 부분사에 그쳤다. 그러다가 최근 송승섭의 『(고대-근현대 시대) 한국 도서관사』(2019)와 『한국 근대 도서관 100년의 여정』(2023)을 선보였다. 이는 근대 이후의 도서관사와 북한 도서관사까지 다룬, 지금까지의 도서관사 연구 성과가 집대성된 것으로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다. 최근의 이런 성과는 이미 50년 전인 1969년에 내놓은 백린의 도서관사 저술이 대단히 선구적이고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송승섭이 전근대 도서관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백린이 제시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승섭이 자서(自序)에서도 직접 밝혔듯이(2019b, 11)²⁸⁾ 한국 도서관사의 전체 서술 순서를 백린이 마련한 서술 구도를 참고해 마련한 것이다. 백린이 50년 전에 처음 선보인 도서관 역사 서술 구성 방식과 역사관,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날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고 가치 있다 할 것이다.²⁹⁾

여기서 구체적으로 백린이 국내 도서관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새로 밝혔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역사를 기술하려면 시대를 나누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관점, 곧 사관이 필요하다. 이때 도서관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느냐(범위)가 대단히 중요하다. 백린은 시대별로 책이 한 곳에 집합되어 있고 이를 독서자가 일정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넓은 의미의 ‘도서관’으로 파악했다. 오늘날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던 근대적 성격의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책들이 모인 장소’를 모두 도서관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석실’, ‘각(閣)’, ‘루(樓)’, ‘관(館)’, ‘고(庫)’, ‘당(堂)’, ‘정(亭)’ 등의 이름이 보이는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 도서관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또한 도서관의 범주를 ‘교육문고’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파악했다. 궁중도서관은 물론, 개인 서재나 기관 소재 서적보관소, 공적인 서적대여 서비스 공간, 그리고 왕실 문고까지 폭넓게 잡았다. 이런 관점에서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28) “이 책의 구성과 목차는 백린 선생의 『한국 도서관사 연구』의 서술 순서를 기본적으로 따랐고”

29) 송승섭은 『한국 도서관사』(2019)에서 백린의 『도서관사』가 153쪽에 그치고 시대별로 의미 있게 언급된 도서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일본 서적을 많이 인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린의 『도서관사』 저술이 갖는 가치와 의의까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1969년과 2023년이라는 시간적 상거(相距)뿐 아니라 처음으로 기술된 도서관 통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백린의 도서관사 저술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다각도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역사를 일관되게 조명하고자 한 지점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백린은 국내 도서관의 역사를 '고조선-삼국-고려-이씨조선-대한제국시대'로 구분했다. 고조선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당당히 인정하고 고조선이란 나라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고조선을 하나의 시대로 대별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백린과는 달리, 송승섭은 고조선부터 고려 이전 시기까지를 '고대'라는 한 시대로 묶었다. 이런 시대구분은 바로 다음 시대를 '고려', '조선' 등 왕조별로 구분한 것까지 고려할 때, 그 층위가 맞지 않는다. 1천 년 이상의 시기, 곧 '고조선-삼국-후삼국-통일 신라' 시대를 단일 성격을 지닌 한 시대인 양 '고대'로 묶은 것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기를 '고대'로 넓게 묶은 이유나 기준을 설명해 놓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 도서관사 연구』는 도서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조선이란 나라의 실제 파악은 쉽지 않다. 백린이 고조선에 도서관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주장과 근거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백린은 문자를 사용했다면 서적이 있었을 것이고, 서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관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문고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가정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에 기초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취급 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추정에 그쳤다.

고구려의 경우, 귀족 자제를 위한 국립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이 있었고, 지방의 평민 대상 교육기관인 경당(肩堂)이라는 사숙(私塾)이 있었다(구당서, 동이고려).³⁰⁾ 이와 관련해 백린은 만약 경당에서 책을 읽었다면 책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그곳에 소장된 특정 책을 공동으로 독서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았다. 책을 모아 놓고 여럿이 함께 독서했다면 그것이 곧 도서관의 옛 형태였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경당이 마을공동체에서 교육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 백린은 그것을 문헌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도서관'으로 주장했다(1969b, 16).³¹⁾

『삼국사기』에는 공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후 수도 철원에 금서성(禁書省)을 설치했다는 기록(김부식, 공예 조)³²⁾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도 백린은 금서성을 각종 공식 문서와 글, 인장 등을 관리하고 책의 간행과 유통을 통제하던 도서관 기능을 하던 기관으로 추정했다(1969b, 20). 그런가 하면 백린은 고려 시대의 문고를 다섯 가지로 나눴다. 첫째, 비각(祕閣)과 비서성(秘書省)을 위시한 왕실 문고, 둘째, 서경(=평양)의 관영(官營) 문고라 할 수서원(修書院)과 국사의 보존을 위한 사고(史庫), 셋째, 국자감(國子監) 및 구재(九齋)인 관학 및 사학의 문고, 넷째, 국가 사찰인 흥왕사를 위시한 사원(寺院) 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설 문고라 할 서재

30) “풍속이 책을 좋아하여 가난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큼지막한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른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어 밤낮으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肩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31) “肩堂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讀書 誦經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讀書하는 場所일 뿐만 아니라 個個人이 永讀키 어려웠던 여러 가지 書籍을 한곳에 모아 놓고 여러 사람이 利用할 수 있게 한 一種의 圖書館이라 하겠으니 肩堂이란 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最初의 圖書館의 名稱이라 하겠다.”

32) “天祐元年甲子(=904년, 인용자 주) … 始置廣評省 … 禁書省[今秘書省] …”

등으로 나누고 이들을 도서관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왕실 문고와 관영 문고를 제외한 책 서고에 대한 기록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린은 국가 전적을 총괄하던 왕실 문고를 위주로 도서관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했다.³³⁾

비록 아마추어 사학자였지만, 한문 원문에 대해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새기고 의미를 파악해 근대 이전 시기에 책을 저장하던 장소, 곧 도서관의 전신, 내지 대체 역할을 한 기관을 호명해내고 이를 고증해 기술하고자 한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고려 시대 도서관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몇몇 역사서를 꼼꼼히 읽고 책을 보관하고 출판 역할을 담당했던 또 다른 기관들, 즉 ‘천장각(天章閣)’, ‘문첩소(文牒所)’, ‘사고(史庫)’, ‘서적소(書籍所)’, ‘서적점(書籍店)’, ‘서적원(書籍院)’, ‘서적포(書籍鋪)’ 등까지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백린은, 비록 민간 도서관은 아니지만, 출판 인쇄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고려 시대에 존재했던 궁중 도서관 그리고 서재 구실을 하던 기관을 통시적으로 처음 소개함으로써 그 의미까지 강조하고자 했다.

조선 시대 도서관으로는 왕실 문고인 집현관과 홍문관, 그리고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 장서고 중 하나인 존경각(尊經閣), 정조 대에 설치된 규장각, 교육 문고에 해당하는 성균관과 학원, 향교와 서원 등 여러 기관을 지목했다. 이중 특별히 백린은 규장각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자세한 고증을 시도했다. 도서관 역사를 집필하던 1960년대에 백린만큼 규장각의 역사와 규장각 소장 도서에 관해 자세히 들여다본 연구자는 많지 않았다.

규장각에는 조선본을 소장하던 서고(西庫)와 중국본을 소장하던 개유와(皆有窩), 그리고 열고관(閣古觀)이 있었는데(백린, 1969b, 109-112) 이곳의 장서는 모두 경사자집의 사부(四部) 분류법으로 나뉘어 있었다(송승섭, 2019b, 157). 규장각은 궁중도서관이었지만 신하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다만 도서 출납 시 일종의 도서대출 장부인 청출패(請出牌)를 사용해야 했다. 물론 빌린 책은 관내에서만 볼 수 있었다. 정조는 규장각에서 신하들이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하며 학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조 사후 순조-철종 대에는 세도정치가 극성을 부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왕실의 힘도 약해졌다. 규장각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19세기 중반 이후로 규장각은 단순히 어제와 어필 등을 보관하거나 책 출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종은 아관파천(1896-1897) 시기에 규장각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일제 지배와 더불어 고종이 순조에게 강제로 왕위를 넘기자, 규장각은 더 이상 최소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1910년 이전에 산재한 국가 도서를 규장각 도서로 편입시키고 왕조의 모든 도서와 각종 기록물을 망라한 제실도서관(帝室圖書館) 설립을 계획했다. 규장각 도서는 물론, 홍문관, 집옥재,

33) 『고려사』에 언급된 사항을 중심으로 궁중 내 여러 서적을 보관하거나 경연을 하던 장소로 여러 왕대에 걸쳐 설치된 ‘비서각(祕書閣)’, ‘수서원(修書院)’, ‘문덕전(文德殿)’, ‘중광전(重光殿)’, ‘연영전(延英殿)’, ‘청연각(淸讌閣)’, ‘보문각(寶文閣)’ 등을 소개하고, 이들 기관이 고려 시대 국가 도서관이자 궁중도서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시각원 등에 있던 장서까지 모두 규장각으로 모았지만, 도서 정리 중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서책을 한곳에 모으는 일도 중단되고, 규장각은 ‘총독부 이왕직서각’로 격하되었다. 1911년에 총독부 산하 취조국이 제실도서를 인수해 관리하다가 1912년에 총독부 참사관(參事官) 분실(分室)에서 소장 도서를 관리하게 되면서 ‘제실도서’를 ‘규장각 도서’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후 통치 방식을 문화 정치로 바꾼다며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는 주체를 다시 총독부 학무국(學務局)으로 바꾸었다. 이후 1923년에 경성제국대학(현재의 서울대학교)이 설립되자, 규장각 도서가 3차에 걸쳐 모두 서울대 부속도서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었다. 당시 왕실 도서였던 규장각 도서가 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진 이유는 단순했다. 연구기관인 대학에서 도서 해제 작업을 완성하고 이를 발행해 배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규장각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역할, 그리고 규장각 소장 장서의 종류와 성격까지 백린은 『한국 도서관사 연구』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선보였다. 그러면서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 처음 나타난 사실에도 주목했다. ‘도서관(Library)’이란 말 자체가 19세기 말에 동양에 수입된 용어로, 일본에서는 1880년에 ‘서적관(書籍館)’을 ‘동경도서관’으로 개칭하면서 처음 ‘도서관’이란 명칭이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1898년에 호남지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를 대조하면서 백린은 한국의 경우 광무 10년(1906)에 ‘대한도서관’ 설립을 논하며 정식으로 처음 사용된 사실을 밝혔다(1969b, 142-144).³⁴⁾ 이에 대해 송승섭(2019a, 203-227)도 대한제국 시대에 최초의 근대식 도서관 건립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그 의미 등을 백린이 지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백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도서관인 서북지방의 평양 종로 대동서관(大同書館)을 소개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1969b, 147-149). 그러면서 근대기 도서관 운동이 서울과 평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이유가 서양의 영향(선교사의 선교, 교육활동 등)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한국 도서관역사 연구』에는 백린이 학계에 처음으로 제시한, 국내 도서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원천 자료가 한 가득 담겨 있다. 물론 백린이 내세운 근거자료와 역사적 이해, 그리고 그 서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생산적인 비판이 요구된다. 백린의 저술과 주장에서 보이는 한계와 오류도 분명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55년 전에 백린이 직접 원문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도서관 역사를 자신만의 관점 하에 재구성해 놓은 도서관사 서술 자체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평가 절하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결과를 내놓는 것이 후학들에게 남겨진 과제임이 분명하다.

34) “최초의 국립도서관이라 할 ‘대한도서관’은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국가가 나설 겨를이 못 되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시작되었다. 1906년 2월에 이범구, 윤치호 등이 대한도서관 설립을 발기하고, 많은 이들이 도서 기증함으로써 국립도서관 건립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IV. 결 론

18세기 후반 열정적인 독서가이자 장서가였던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자신이 소장한 서책에 대해 스스로 책 분류를 시도했다. 그는 뻗속까지 사대부였지만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경사자집(經史子集)'이라는 4가지 대분류법을 맹목적으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김하라 편역, 2015, 217-219).³⁵⁾ 지식 분류를 위해선 시대에 맞게 새로운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책의 내용과 분류가 실용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잘못 체계를 세우거나 옛 분류를 그대로 인습할 경우, 오히려 그것이 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춰 책(지식)을 분류할 수 있는, '사법(死法, 죽은 규칙)'이 아닌 '활법(活法, 융통성 있는 규칙)' 정신을 주장한 것이다.

유만주가 중요하게 본 활법 정신은 오늘날 사서에게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백린이야말로 오늘날 활법을 실천하기 위해 힘쓴 연구 사서였다. 백린도 스스로 "사서란 누구인가?" 자문하고, "열람자가 도서를 찾을 때까지 장서를 사장(死藏)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도서 정리로 열람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록 정리자"라고 자답한 바 있다(백린, 1968). 책 분류가 '활법'이 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남보다 앞서 마련하고, 그런 정신과 태도를 후학에게 전해주고자 한 사서계의 1세대 선배이자 스승이 바로 백린이었다. 오스트볼트 교수와 함께 서울대 도서관 도서를 한국 근현대인 요구에 부합한 도서 분류를 행할 것을 제안하고 도서목록법과 도서분류법을 고민해 계속 관련 글을 활발히 발표한 것도 바로 백린의 활법 정신이 발현된 결과라 할 것이다.

백린은 대학 도서관에서 평생을 바친 사서이면서, 도서관 초창기 고서 분류와 자료 정리 체계를 확립하고 규장각 도서 윤곽과 한국도서관 역사를 처음으로 밝힌 전문 '연구사서(Scholar-Librarian)'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규장각 소장 귀중 서책을 한국전쟁에서 지켜내고 한국 최초의 대학도서관 사서관이 되었고, 늘 스스로 공부하고 글을 써서 도서관 후학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자 한 지식인이었다. 또한 전통의 존재태인 고서와 문서를 근현대적 체계 속에서 제 위치를 찾도록 매개하던 문화중개자이기도 했다.

사서 백린을 아는 이가 적은 상태에서 이제라도 그를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고는 백린의 생애와 사서로서의 역할과 공적, 그의 교우 관계 및 학문적 성과를 두루 고찰함으로써

35) 유만주 (1785, 6. 29.). 함영. "지금 세상에서는 언제나 '경사자집'이라 하여 4부를 일컫는데, 자부(子部)가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중략)… 후세에 자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오직 경전과 사서 외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책들이 될 터이니, 병술과 농업, 의술, 점성술, 천문학, 역학(易學) 등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에 전공하여 쓴 책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이런 것들을 모두 후세의 자부라 할 수 있다. 꼭 옛날에 정한 구류(九流)의 항목을 따를 필요 없이 그것을 참고하되 새로운 항목을 별도로 세워도 안 될 것 없다. 이것이 바로 자부를 분류하는 활법(活法)이라 하겠다. …(중략)… 구구하게 노자니 장자니 신불해(申不害)니 한 비자(韓非子)니 하는 분류를 그대로 인습하여 이전의 자부를 닮으려 애써서 책을 만든다면 실용성은 전혀 없게 되니, 책의 적(敵)일 뿐 내가 말한 자부는 아니며, 그런 책은 역시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다."

사서 백린의 위치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도서관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구할 수 있는 기초적 논의의 장을 개시하고자 했다. 사서 백린과 그가 뿌린 도서관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각론과 총론을 막론해 학계에서 후속 연구로 계속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다.

참 고 문 헌

- 구당서(舊唐書) 권199 상, 열전 편 제149 상, 동이고려(東夷高麗) 조.
김동환 (2005). 고려시대의 도서관 연구 - 보문각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 205-235.
김부식 (1145). 삼국사기 권50, 열전 편 제10, 궁예 조.
김연정 (1995). 지성과 온용의 사서 김태율. 문헌정보학, 6(1), 16-17.
김하라 편역 (2015). 일기를 쓰다 1(흠영 선집). 파주: 돌베개, 217-219.
뉴잉글랜드 미주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 편 (2004). 뉴잉글랜드 한인사. 서울: 선학사, 152.
마미경 (2017). 사서의 표상 故 백린 선생. 국립대학도서관보, 35, 53-77.
민영규 (1966. 7.). 충실한 분류법과 색인-동아문화연구소 刊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 신동아, 349.
박문열 (1996). 삼국시대의 도서관사에 관한 연구. 청주대인문과학논집, 15, 83-99.
박병호 (1992). 고문서 자료의 수집, 정리 문제. 정신문화연구, 15(46), 7-8.
박봉석 편 (1958). 한국십진분류표. 서울: 국립도서관.
박종근 (2000). 도서관을 지킨 사람들 - 백린 선생님. 도우회보, 3, 5-8.
박종근 (2016). 특별기고: 백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립대학도서관보, 34, 391-394.
박종근 (2019).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머문 35년의 흔적. 서울: 도서출판 해남.
박희영 (1960).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 도협월보, 1(5).
박희영 (1960). 한국도서관사 연구(2). 도협월보, 1(6).
박희영 (1960). 한국도서관사 연구(3). 도협월보, 1(7).
박희영 (1960). 한국도서관사 연구(4). 도협월보, 1(8).
박희영 (1960). 한국도서관사 연구(5). 도협월보, 1(9).
박희영 (1961). 한국도서관사 연구초(6). 도협월보, 2(1).
박희영 (1961). 한국도서관사 연구초(7). 도협월보, 2(2).
박희영 (1961). 한국도서관사 연구초(8). 도협월보, 2(3).
박희영 (1961). 한국도서관사 연구초(9). 도협월보, 2(4).
박희영 (1962).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0). 도협월보, 3(1).

- 박희영 (1962).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1) - 임진란 전후의 도서관사 자료. 도협월보, 3(2).
- 박희영 (1962).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2) - 규장각 설치 직전의 도서관사 자료. 도협월보, 3(5).
- 박희영 (1962).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3) - 규장각 창건 시대의 도서관사 자료. 도협월보, 3(6).
- 박희영 (1962). 한국도서관사 연구초(14). 도협월보, 3(7).
- 박희영 (1963). 근세한국공공도서관사초. 도협월보, 4(5).
- 백린 (1959). 중국, 일본 및 한국 자료의 목록을 위한 예비 규칙과 편람. 서울: 연세대 도서관학과·
조지 피바디대학, 28.
- 백린 (1960). 도서분류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백린 (1962). 규장각 장서에 대한 연구-附: 朝鮮圖書解題未收書目 五十種. 석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도서관학과.
- 백린 (1964). 고(故) 김태율(金泰律) 선생 소전(小傳). 도협월보, 7(5), 32-34.
- 백린 (1966). 고서목록규칙. 서울: 서울대중앙도서관.
- 백린 (1968).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과 인쇄 카드에 대한 제언. 도서관보, 6, 15-16.
- 백린 (1969a).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60, 6-8.
- 백린 (1969b). 한국 도서관사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백린 (1972). 한국의 고활자(손보기 저) 서평. 한국사연구, 7, 227-230.
- 백린 (1998. 4.). 노 사서의 독백. 도우회보, 창간호, 4-7.
- 백린 (2001. 8. 24. - 2002. 11. 29.). 갑신정변과 망명유학생. 보스톤 한인회보.
- 백린·임중순 (1970). 내려문적지(羅麗文籍誌). 서울: 국회도서관.
-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1965). 규장각도서관한국분총목록. 동아문화연구소, 5-6.
- 서울대학교도서관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도서관오십년사: 1946-1996.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 38, 60-63.
- 서화동 (2010. 11. 14.). 이토가 반출한 규장각 도서 모두 돌아온다. 한국경제.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0111479431>
- 송승섭 (2019a). 백린의 <한국도서관사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40(3),
203-227.
- 송승섭 (2019b). (고대-근현대시대) 한국도서관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 (2023). 한국근대도서관 100년의 여정. 서울: 도연문고.
- 안정현, 신언호, 김영준, 강덕우, 김윤식 (2021).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인천: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연구팀.
- 연세대학교 편 (2002). 2002년도 연세대학교 요람.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만주 (1785. 6. 29.). 흠영(欽英).

- 윤병태 (1983). 내사기와 내사인기(內賜印記). 도서관학연구지, 8.
- 윤충남 엮음 (2001).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서울: 을유문화사.
- 이광린 (1990). 나의 학문 편력. 한국사 시민 강좌, 6, 164.
- 이재철 (1958). 동서저자기호표- 및 그 사용규정.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 연구실, 2.
- 이춘희 (1995). 근대한국도서관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 11-44.
- 장인식 (1971). 공공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전창호 (2018). 규장각 장서의 수호자, 백린. 도서관문화, 59(6), 32-34.
- Ostvold, H. (1956).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A Report by Harald Ostvold.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Jeong-Heon, Shin, Eon-Ho, Kim, Young-Jun, Kang, Deok-Woo, & Kim, Yoon-Sik (2021). The Past and Present of Michuhol Library. Incheon: Incheon Metropolitan City's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Research Team.
- Baek, Rin (1959).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 Seou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 George Peabody College, 28.
- Baek, Rin (1960). Book Classification Tabl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Baek, Rin (1962). A Study on the Gyujanggak Collec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 Baek, Rin (1964). A short biography of the late Kim Tae-yul.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7(5), 32-34.
- Baek, Rin (1966). Rules for the Cataloging of Old Book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 Baek, Rin (1968). Suggestions for union catalogs and printed cards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Bulletin, 6, 15-16.
- Baek, Rin (1969a). On naesagi(內賜記) and seonsajigi(宣賜之記). National Assembly Library Bulletin, 60, 6-8.
- Baek, Rin (1969b).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Baek, Rin (1972). Book review: Movable metal type of Korea by Son Bo-gi. Journal of

- Korean History Studies, 7, 227-230.
- Baek, Rin (1998, April). A senior librarian's soliloquy. Dowoo Bulletin, Inaugural Issue, 4-7.
- Baek, Rin (2001, August 24 - 2002, November 29). The Gapsin coup and exiled students (28 part series). Boston Korean Association Bulletin.
- Baek, Rin & Lim, Jong-Sun (1970). A Catalog of Documents from Goryeo and Silla.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Jang, In-Sik (1971). Public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Jeon, Chang-Ho (2018). Protector of the gyujanggak collection, Baek Rin. Library Culture, 59(6), 32-34.
- Kim, Bu-Sik (1145). SamgukSagi. Vol. 50, Biographies Chapter 10, Gung-Ye(弓裔).
- Kim, Dong-Hwan (2005). A study on libraries in the goryeo dynasty: focusing on bomunga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2, 205-235.
- Kim, Yeon-Jeong (1995). Kim Tae-Yul, a librarian of wisdom and warm tolera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1), 16-17.
- Kim, Ha-Ra, ed. (2015). Writing a Diary 1 (A Selection of Heumyeong's Writings). Paju: Dolbegae, 217-219.
- Lee, Choon-Hee (1995).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s moder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 11-44.
- Lee, Kwang-Rin (1990). My academic journey. Korean History Civic Lecture, 6, 164.
- Lee, Jae-Cheol (1958). East-West Author Marks and Usage Rules. Ewha Womens University Library Science Research Office, 2.
- Ma, Mi-Kyung (2017). The representation of librarians: the late Baek Rin. Journal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35, 53-77.
- Min, Young-Kyu (1966). Reliable classification and indexing: the complete catalog of Korean books in gyujanggak, published by the east asi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ShinDong-A, 349.
- New England Korean-American Centennial Project Committee (2004). History of Koreans in New England. Seoul: Seonhaksa, 152.
- Old Book of Tang(舊唐書), Volume 199 Part 1, Biographies Chapter 149 Part 1, Eastern Barbarians - Goguryeo(東夷高麗).
- Park, Byoung-Ho (1992). Issues in the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ancient documents.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5(46), 7-8.
- Park, Bong-Seok (ed.) (1958).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eoul: National Library.
- Park, Hui-Yeong (1960).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1(5).
- Park, Hui-Yeong (1960).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2).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1(6).
- Park, Hui-Yeong (1960).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3).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1(7).
- Park, Hui-Yeong (1960).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4).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1(8).
- Park, Hui-Yeong (1960).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5).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1(9).
- Park, Hui-Yeong (1961).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6).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2(1).
- Park, Hui-Yeong (1961).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7).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2(2).
- Park, Hui-Yeong (1961).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8).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2(3).
- Park, Hui-Yeong (1961).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9).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2(4).
- Park, Hui-Yeong (1962).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0).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3(1).
- Park, Hui-Yeong (1962).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1): historical sources of libraries around the Imjin war.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3(2).
- Park, Hui-Yeong (1962).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2): historical sources of librar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yujanggak.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3(5).
- Park, Hui-Yeong (1962).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3): historical sources of libraries during the founding of Gyujanggak.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3(6).
- Park, Hui-Yeong (1962). A preliminary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14).

-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3(7).
- Park, Hui-Yeong (1963).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ublic libraries. Library Association Monthly Bulletin, 4(5).
- Park, Jong-Geun (2000). The people who protected the library: the late Baek Rin. Dowoo Bulletin, 3, 5-8.
- Park, Jong-Geun (2016). Special contribution: in memory of the late Baek Rin. Journal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34, 391-394.
- Park, Jong-Geun (2019). 35 Years of Legac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eoul: Doseo Publishing Haenam.
- Park, Moon-Yeol (1996). A study on the history of librari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Cheongju University Journal of Humanities, 15, 83-99.
- Seo, Hwa-Dong (2010, November 14). Gyujanggak Books Taken by Ito to Be Fully Returned. Korea Economic Daily. Availabl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0111479431>
- SNU East Asi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ed. (1965). Complete Catalog of Korean Books in Gyujanggak, 5-6.
- SNU Library 50th Anniversary Compilation Committee, ed. (1996). Fifty-Year History of SNU Library: 1946-1996. SNU Central Library, 38, 60-63.
- Song, Sung-Seob (2019a). A critical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in Korea' of Rin Paek. The Journal of Humanities, 40(3), 203-227.
- Song, Sung-Seob (2019b). The History of Korean Librarie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Song, Sung-Seob (2023). The 100-Year Journey of Korean Modern Libraries. Seoul: Doyeon Bookstore.
- Yonsei University, ed. (2002). Yonsei University Handbook 2002. Yonsei University Press.
- Yoon, Byeong-Tae (1983). Naesagi and naesain-gi. Journal of Library Science Research, 8.
- Yoon, Chung-Nam, ed. (2001). The Cradle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Seoul: Eulyoo Publishing Co.
- Yu, Man-Ju (1785, June 29). Heumyeong.

